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이 겪는 입학전후 문제점에 관한 연구

조기범, 김승용

한양대학교 예체능대학 스포츠과학부

A Study on Students' Difficulties Before and Throughout Physical Education Program a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i-Bum Cho, Seung-Yong Kim

Division of Sport Science, College of Sport & Art, Ha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의 입학 전부터 졸업 전까지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교육대학원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며,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100부 중 95부를 실제 자료처리에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은 입학 전에는 컸지만 입학 후에는 새로운 고민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교육대학원 과정을 위한 시간 투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셋째,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한 고민은 입학 후부터 졸업 때까지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지식의 부족함에 대해 졸업 전에 큰 고민거리로 인지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교육대학원은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평가체계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대학원생, 대학생활, 교육과정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plore perceived difficulties from before entrance into physical education 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o before graduation. Participants were PETE graduat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survey was used to collect data. Among 100 copies of data, 95 copies had been used for actual data processing.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SPSS 21.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had trouble in financial difficulty before entering graduate school, but the financial difficulty was considered normal by other new difficulties. Second, much time spent f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as considered one of biggest difficulties, but the burden of curriculum was relatively low. Third, anxiety about future career that started from before entering graduate school lasted until graduation. Fourth, lack of knowledge was considered as one of biggest troubles before graduation. Conclusively, physical education in graduate schools need to develop career education as well as evaluation system for the qualitative growth.

Key Words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tudent, Campus Life, Curriculum

Received 2 October 2017, Revised 2 November 2017
Accepted 20 November 2017, Published 28 Nov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Seoung-Young Kim
(Hanyang University)
Email: sykim@hanyang.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못지않게 교육개혁은 다양한 방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사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교사개혁을 위해 2000년도부터 정부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추진하였으며, 교사양성에서부터 교직에 대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교사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미흡과 세계적 변화에 미온적인 교사교육 방법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사교육이 질적으로 저하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1].

교사교육을 위해 출발점에 있는 교원양성기관 중에는 대표적으로 교육대학원이 있다. 특히, 교육대학원은 2016년 기준으로 112개에 달하는 만큼 이러한 교사개혁의 미진한 변화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1, 2], 따라서 교육대학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대학원은 본래 교육행정가 및 교사재교육의 목적으로 1963년 서울대학교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교육대학원의 양적 성장과 함께 시대가 지나면서 각 전공분야의 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변화하였고, 주로 신규교사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현직 교사들이 승진을 위해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4]. 교육대학원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1998년부터 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여건 등을 관리하기 시작하였지만, 교육대학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명확한 법령 미흡으로 인해 그 역할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대학원의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3].

교육대학원에서 다루는 전공들은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에 이르기까지 학교마다 상이하며, 매우 광범위하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부분으로 예체능계열의 전공자들은 졸업 후 교사 혹은 지도자로서 진출하는 비율이 다른 기타 전공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이다[2]. 뿐만 아니라 체육교육전공은 최근 학생들의 안전 및 개인 위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학교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체육교사의 양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및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체육교육전공자들이 교육대학원

재학 중 인지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의 파악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시대적 요구에 맞는 교육대학원으로서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예비 체육교사들의 수업지도 경험 및 실행에 대한 연구[5, 6, 7], 그리고 체육교육전공자들의 진로고민 및 전공경험에 대한 연구[2, 8] 등이 발견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자들이 입학 전부터 졸업 전까지는 물론 특히, 재학 중 겪는 인지된 문제점 등을 시기별로 분석한 연구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의 입학 전, 입학 후, 졸업 전 에 인지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교육대학원의 역할 및 교육과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체육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교육대학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이 입학 전, 입학 후, 졸업 전에 겪는 문제점들을 조사하여 교육대학원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고자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예비조사를 거친 후 최종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은 체육교육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전국의 교육대학원들 중 서울과 경기지역의 4곳을 선정하였으며, 총 100명의 학생들이 설문지 작성에 참여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각 교육대학원 원장 및 담당교수들의 허락 하에 진행되었으며, 설문지 배포 전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참여를 희망한 학생들에게만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총 100명의 참여자들 중 5명이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지 않아 95명의 결과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여성이 43명, 남성이 52명이었으며, 연령은 22세부터 40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2.2 연구도구

설문지는 입학 전, 입학 후, 졸업 전에 발생하는 다양

<Table 1> Factors Influencing Decision to Pursue Graduate Degree in PETE

	Primary influencing	Significant influencing	Somewhat influencing	Not very influential	Not influential at all
The chance to impact the future of PK-12 PE	17(17.9%)	29(30.5%)	32(33.7%)	13(13.7%)	3(3.2%)
Income	7(7.4%)	19(20%)	42(44.2%)	21(22.1%)	5(5.3%)
Lifestyle	12(12.6%)	38(40%)	37(38.9%)	6(6.3%)	2(2.1%)
I was burnt out at my old job and needed a new challenge	8(8.4%)	27(28.4%)	19(20%)	25(26.3%)	16(16.8%)
Desire for higher education	8(8.4%)	21(22.1%)	25(26.3%)	27(28.4%)	14(14.7%)
The chance related to future PE teachers	48(50.5%)	26(27.4%)	16(16.8%)	4(4.2%)	1(1.1%)
Job security	31(32.6%)	33(34.7%)	22(23.2%)	7(7.4%)	2(2.1%)
Desire to see changes in the field of PE	14(14.7%)	34(35.8%)	30(31.6%)	12(12.6%)	5(5.3%)

한 상황들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체육교육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개발한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이들이 개발한 설문지는 Clark, Harden, & Johnson[9], Golde[10], Seagram, Gould, & Pyke[11]의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렇게 작성된 설문지를 설문 개발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원생 19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의 신뢰성 검증 결과 입학 전($\alpha = .843$), 입학 후($\alpha = .860$), 졸업 전($\alpha = .914$)으로 나타남으로써 설문지 사용을 위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2.3 자료 분석

자료 분석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참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설문지 각 문항의 결과를 빈도분석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참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참여한 95명의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전공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의 43명(45.3%)이 여성이었으며, 52명(54.7%)은 남성이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연령은 20대가 80%, 30대가 16.8%, 그리고 40대가 3.2%였으며, 약 90%의 참여자들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대학원 입학에 영향을 끼친 요인

교육대학원 입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는 체육교사가 될 수 있다는 기회획득이 77.9%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업적인 안정성 때문(67.3%)에, 또는 기존 체육현장의 변화에 대한 열망 때문(50.5%)이라는 이유도 큰 영향을 끼친 요인들이었다. 반면에 수입(27.4%) 및 기존 직업에 대한 불만 때문에(36.8%), 그리고 고학력에 대한 열망 때문(30.5%) 등이 상대적으로 교육대학원 입학에 영향을 조금 미친 요인으로 밝혀졌다. 자세한 결과는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 대학원 입학을 위해 사용된 전략들

교육대학원 입학을 위해 사용한 전략으로는 개인친분이 있는 멘토와의 상담(69.1%)에 의해 대학원 입학을 결정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학과 교수님들의 추천(41.5%) 또한 대학원 입학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교사지식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전공 관련 학회(5.3%)나, 출판물(1.1%)과 같은 정보로부터는 교육대학원 입학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Program Selection Strategies Employed

Strategies	Frequency
Word of mouth	28/94(29.8%)
PETE program suggested by mentor	65/94(69.1%)
Cold calling department chairs or professors	39/94(41.5%)
PETE program and University websites	37/94(39.4%)
Professional conferences	5/94(5.3%)
Research articles	1/94(1.1%)

<Table 3> Factors Expected as Program Attractors before Graduate Courses

	Primary influencing	Significant influencing	Somewhat influencing	Not very influential	Not influential at all
Geographic location	8 (8.4%)	20 (21.1%)	34 (35.8%)	18 (18.9%)	15 (15.8%)
Financial assistance	2 (2.1%)	17 (17.9%)	28 (29.5%)	23 (24.2%)	25 (26.3%)
Current faculty	5 (5.3%)	23 (24.2%)	39 (41.1%)	17 (17.9%)	11 (11.6%)
Prestige of University	6 (6.3%)	31 (32.6%)	33 (34.7%)	16 (16.8%)	9 (9.5%)
Professional development opportunities for PETE graduate students	14 (14.7%)	25 (26.3%)	30 (31.6%)	21 (22.1%)	5 (5.3%)
Availability for receiving teaching qualification relatively easily	43 (45.3%)	25 (26.3%)	14 (14.7%)	4 (4.2%)	9 (9.5%)
Size of PETE graduate program	9 (9.5%)	26 (27.4%)	38 (40%)	11 (11.6%)	11 (11.6%)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3 (3.2%)	14 (14.7%)	41 (43.2%)	23 (24.2%)	13 (13.7%)
Program with research expectation	10 (10.5%)	29 (30.5%)	33 (34.7%)	10 (10.5%)	13 (13.7%)
Availability for online coursework	2 (2.1%)	11 (11.6%)	39 (41.1%)	27 (28.4%)	16 (16.8%)

<Table 4> The Perceived Barriers before Starting Graduate Program

	Largest barrier	Significant barrier	Somewhat barrier	Minor barrier	Not a barrier at all
Securing financial assistance	26(27.4%)	29(30.5%)	25(26.3%)	7(7.4%)	8(8.4%)
Leaving my previous job	1(1.1%)	21(22.1%)	28(29.5%)	25(26.3%)	20(21.1%)
Conducting research	6(6.3%)	23(24.2%)	33(34.7%)	23(24.2%)	10(10.5%)
Moving my family	2(2.1%)	1(1.1%)	10(10.5%)	19(20%)	63(66.3%)
Finding a quality PETE graduate program	8(8.4%)	16(16.8%)	34(35.8%)	26(27.4%)	11(11.6%)
Perceived ability to complete the required coursework	12(12.6%)	24(25.3%)	36(27.9%)	20(21.1%)	3(3.2%)
Cost of living in college	19(20%)	23(24.2%)	29(30.5%)	14(14.7%)	10(10.5%)

3.4 대학원 입학 전 기대했던 장점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기대했던 요인으로는 교원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71.6%로 가장 높았으며, 리서치가 가능한 프로그램의 제공(41%) 및 대학원생들을 위한 다양한 전문적 프로그램의 제공(41%)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온라인 교육과정의 제공(13.7%)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낮은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학제 간 협력(17.9%) 및 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20%) 또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는 <Table 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5 대학원 입학 전 인지된 문제점들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인지된 어려움으로는 학비를 위한 재정지원의 확보(57.9%)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였으며, 생활비 마련에 대한 고민(44.2%), 또한 학생

들이 인지한 가장 큰 문제점들로 밝혀졌다. 반면에 가족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겪는 어려움(3.2%)에 대해서는 가장 적게 걱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는 <Table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6 대학원 입학 후 인지된 문제점들

교육대학원 입학 후에 인지된 어려움으로는 졸업 후 직업 확보에 대한 고민(62.1%)이 가장 높았으며, 시간 투자(57.9%)에 대한 어려움 또한 큰 고민거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교육과정(24.2%)과 재정 지원의 확보(26.4%)에 대한 고민이 가장 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는 <Table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7 대학원 졸업 전 인지된 문제점들

교육대학원 졸업 전에 인지된 어려움으로는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44.7%)이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재정지

<Table 5> The Perceived Barriers after Starting Graduate Program

	Largest barrier	Significant barrier	Somewhat barrier	Minor barrier	Not a barrier at all
Securing financial assistance	3(3.2%)	22(23.2%)	38(40%)	13(13.7%)	18(18.9%)
Time commitment	25(26.3%)	30(31.6%)	18(18.9%)	14(14.7%)	7(7.4%)
Conducting research	20(21.1%)	23(24.2%)	37(38.9%)	9(9.5%)	4(4.2%)
Securing employment after degree completion	25(26.3%)	34(35.8%)	24(25.3%)	5(5.3%)	6(6.3%)
Coursework	10(10.5%)	13(13.7%)	40(42.1%)	21(22.1%)	10(10.5%)
Personal insecurities of intellectual competence	15(15.8%)	25(26.3%)	23(24.2%)	25(26.3%)	6(6.3%)

<Table 6> The Perceived Barriers before Completing Graduate Program

Lists	Frequency
Feelings of isolation from other academic peers	5/94(5.3%)
Feelings of isolation from PETE faculty or major advisor	12/94(12.8%)
Feelings of marginalization from other academic peers/discipline within our program/University/College	17/94(18.1%)
Job market prospects	42/94(44.7%)
Strictness/rigor of degree requirements for completion	20/94(21.3%)
Feeling unsupported by significant others or family	3/94(3.2%)
Feeling unsupported by professional peers	1/94(1.1%)
Feeling unsupported by professional mentor or advisor	4/94(4.3%)
Intellectual limitations	25/94(26.6%)
Frequency of meetings with your supervisor/major advisor	3/94(3.2%)

원의 중단(34%), 그리고 지식의 부족함(26.6%)에 대해서도 큰 문제점이라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지도교수와 의 잦은 회의(3.2%), 가족의 비협조(3.2%) 및 동료의 비협조(1.1%)는 가장 적게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이었다. 결과는 <Table 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논의

4.1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의 대학원 입학준비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가장 큰 이유로 체육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획득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들이 밝힌 것처럼 교육대학원의 성격이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4]. 게다가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직업적인 안정성을 기대하며 교육대학원 입학에 준비하였다고 답했으며, 이는 교사라는 직업이 여전히 많은 취업준비생들로부터 선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흥미롭게도 절반정도의 학생들은 기존 체육현장의 변화에 대한 열망 때문에 교육대학원에 입학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과거에 비판받았던 체육교사의 제한적인 역할 및 무성의한 수업태도에 대한 변화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수입이나 고학력과 같은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교육대학원에 진학했다고 답한 학생들은 많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대학원과 교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석사학위 취득이라는 목적보다는 자격증 취득에, 그리고 수입보다는 안정성에 보다 더 큰 목적이 작용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교육대학원 진학을 위해 학생들이 사용한 전략들을 살펴보면 멘토와의 상담 및 학과 교수님들의 추천이 전공 관련 학회 및 출판물 등의 정보에 의해서라는 답변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교육대학원 입학은 교수진과 전공연구를 위한 환경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일반대학원과는 차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으로서, 교육대학원 진학을 위한 전문적인 상

담장구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알 수 부분이었다.

교육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학생들이 교육대학원 입학 을 통해 기대하는 요인으로는 교원자격증을 쉽게 취득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교원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결국 교육대학원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여전히 정체되고 있음을 지적한 여러 선행연구를 반복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12]. 다시 말해, 교육대학원의 교육 과정을 통해 예비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쉽고 빠르게 교원자격증의 취득이 용이한 학교선택이 매우 중요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13]. 결과적으로 능력 있는 예비교사를 양성 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의 질적 향상에 대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흥미롭게도 리서치가 가능한 프로그램 및 학생 들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학생들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크게 기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교원자격증 취득이라는 주요 목적 이외에도 교육과정 동안 리서치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및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기대 했더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중도포기 혹은 졸업연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이기 때문이다.

특히, 리서치 수행은 일반대학원에서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대감이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은 곧 학생들의 잘못된 판단에서 기인하였거나, 혹은 교육대학원의 과장된 홍보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리서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후속연구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기대감을 제공하는 요소들이 있는 반면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과정 및 학제 간 협력과 같은 교육 대학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적 가치들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 또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연구 및 행정 조교 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대학원과 달리 조교와 같은 기회 등을 거의 제공 받

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4.2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의 대학원 입학 전, 입학 후, 졸업 전 인지된 문제점들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의 입학 전, 입학 후, 졸업 전에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은 입학 전과 입학 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교육대학원에 재학하기 위한 학비 및 생활비 마련에 대한 입학 전 고민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고민이 입학 후에는 그 우선순위가 현저하게 뒤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고민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요인들이 입학 후에 새롭게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적 부담을 대신하여 큰 부담으로 인지된 요인들은 졸업 후 직업 확보에 대한 고민과 교육대학원 과정을 위한 시간투자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시간을 관리하고 조언해줄 수 있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며, 진출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취업상담 또한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대학원 과정을 위한 시간 투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꼈지만 실제 교육과정에 대한 부담감은 가장 적게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학위과정에 많은 시간 투자를 한다는 의미가 곧 교육과정의 어려움에 의해서가 아닌 다른 요소들에 있어서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교과목의 교육대학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으며[14], 쉽게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이 훈련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지만, 선수생활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논리이다. 그러므로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이 교육과정이 아닌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한 고민은 입학 후부터 졸업 때까지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은 비단 체육교육전공자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80% 가까운 학생들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으로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였고, 또한 70% 가까운 학생들은 직업의 안정성 추구를 위해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였더라는 결과를 보았을 때,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이러한 기대감은 현실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육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혹은 교원자격증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목적은 뚜렷하지만 교육 수요자들의 개인적 배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 수준이 학부 수준에 그치고 있다[15]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대학원에서는 학생모집에 대한 목적을 단순히 자격증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에만 그치지 말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및 운영 체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시스템적인 개선과 더불어 다양한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 조성 또한 필요하며, 학생 스스로도 자격증 취득만을 목적으로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시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안고 가야 한다면 사실은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의 부족함에 대한 고민을 졸업 전에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정적인 걱정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요소들은 특정시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고민요소들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졸업 전에 이르러 지식의 부족함에 대한 걱정이 주요요소로서 등장하게 된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런 결과는 교육대학원이 가진 독특한 체계에게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일반대학원의 경우 학위를 취득한 이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여 개인의 능력에 맞는 진로를 대비할 수 있는 반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용하기를 원하는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는 교사와 같은 특수하고 제한적인 진로만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지식수준이 임용고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동료들과 직접 비교가 가능하여 지식의 부족함을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대학원 졸업 후 임용고시를 통과하여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은 선행연구를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2]. 그러므로 교육대학원에서는 학생들 간에 취업 준비를 위한 취업준비반 및 이

를 위한 지원정책 또한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원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입학 전부터 졸업 전까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교육대학원의 질적 성장보다는 입학생 유치와 같은 양적 성장에 우선순위를 지정한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해결책이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재학기간 내내 지속되고 있었고, 학생 스스로 지식의 부족함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바로 질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들이었다. 그러므로 교육대학원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커리큘럼 내에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학생들의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활용하는 일반대학 및 대학원과 달리 학생들의 지식을 다양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변화를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서울과 경기지역의 교육대학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모든 교육대학원의 상황으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타 지역 교육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자기기록 설문지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참여자가 기록한 설문지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하는 제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심층면담이나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통하여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 G. Kim, "A study on the professionalization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E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1.

- [2] J. S. Ham, "Exploration of career concerns and conflict factor in dropping ou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7, pp. 621-640, 2017.
- [3] D. T. Kwon,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for re-educational function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ournal of the Elementary Education Society*, Vol. 20, No. 1, pp. 1-16, 2014.
- [4] S. M. Shin, "A study on the level of student satisfaction toward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Korea." ME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13.
- [5] M. Y. Kim,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re-service P.E teacher's reflection through educational volunteering and inquiry on the educational mean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5, No. 2, pp. 639-661, 2015.
- [6] W. J. Kim, "Study of self-reflective process on pre-servic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microteaching."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Vol. 17, No. 1, pp. 25-52, 2010.
- [7] Y. J. Hwang, J. A. You, "Exploring practical experience of pre-servic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in team teaching."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30, No. 2, pp. 49-75, 2013.
- [8] H. R. Park, "A narrative inquiry about the experience by graduate students of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Vol. 29, No. 2, pp. 383-404, 2015.
- [9] R. A. Clark, S. L. Harden, W. B. Johnson, "Mentor relationships in clinical psychology doctoral training: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Teaching of Psychology*, Vol. 27, No. 4, pp. 262-268, 2000.
- [10] C. M. Golde, "The role of the department and discipline in doctoral student attrition: Lessons from four department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 76, No. 6, pp. 669-700, 2005.
- [11] B. C. Seagram, J. Gould, S. W. Pyke, "An investigation of gender and other variables on time to completion of doctoral degree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Vol. 39, No. 3, pp. 319-335, 1998.
- [12] I. S. Jang, "A study of American graduate curriculum in school of education: A case study."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 10, No. 1, pp. 171-194, 2004.
- [13] U. S. Choi, "A study on the rol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s an institution of higher adult educatio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9, No. 3, pp. 173-200, 2003.
- [14] O. J. Lee, "Discussion of Chinese language education programs i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 survey research of learners' assessment of program curriculum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 32, pp. 423-450, 2010.
- [15] S. R. Lim, "An analysis of the needs and perceptions of both professors and studen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s: Toward improving the educational quality of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5, No. 4, pp. 105-132, 2005.

조 기 범(Cho, Ki Bum)



- 2004년 2월 : 한양대학교 졸업(체육학사)
- 2011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체육학석사)
- 2016년 12월 :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 대학원(체육학박사)
- 관심분야 : 학생건강증진, 학교체육 통합 프로그램 개발

· E-Mail : rotc11542@gmail.com

김 승 용(Kim, Seung Yong)



- 1999년 2월 : 한양대학교 졸업(체육학사)
- 2002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체육학석사)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체육학박사)
- 관심분야 : 스포츠교육, 학교체육, 생활스포츠

· E-Mail : sykim@hanyang.ac.kr